

월요광장

문화다양성과 창의도시



이승권
조선대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장

오늘날 글로벌 이슈의 하나는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le)이다. 유네스코(UNESCO)는 1982년 멕시코 문화정책선언(Mexico City Declaration on Cultural Policy)을 시작으로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paris)이 나오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가 문화의 정체성과 창의성을 확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약자의 문화를 소외시키고 자유로운 표현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문화유산의 중요성,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단순한 상

품이나 소비재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9년 연례보고서(Annual World Report)에서는 유네스코가 제시한 문화다양성 개념이 인권(human rights)과 인류의 평등가치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policy)에서부터 생물종 다양성을 주장하는 환경생태주의(ecology)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공지했다.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시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했다. 유네스코는 도시의 문화자원이 창의성의 보고가 되고, 도시의 특성이 문화다양성의 원천이 되어 인류문명의 보고인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점에서 유네스코 추구하는 창의도시는 성장 일반도의 산업도시나 세계도시가 지향하는 도시 모델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5월 21일은 UN이 제정한 세계문화다양성의 날(World Day for Cultural Diversity for Dialogue and Development)이다. 이 날의 구호는 '다양성과 포용을 위한 한 가지 실천하기(Do One Thing For Diversity and Inclusion)'이다. UN은 지구에 살고 있는 현재와

미래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념일을 제정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도 이러한 정신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도시의 문화다양성을 복원하는 것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적인 사회는 이질적인 사상과 개념이 공존하고 서로 다른 영역이 소통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창의도시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자연스런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광주가 창의도시 사업을 통해서 창의공간을 확보하고 창의인재를 영입하여 지역의 패색성을 극복할 수 있다면 창의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창의도시가 창의인재와 창의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간다는 점에서 창의산업과 창의인재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의 중요한 과제이다.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창의성 교육도 교육을 통한 창의성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첫발을 내딛는 광주의 창의도시

사업이 기존의 관행에 젖어서 도시환경 개선이나 거대한 미디어 아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창의적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미래 프로젝트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무엇보다도 광주가 세계적인 창의도시가 되고자 한다면 미디어 아트는 난해한 주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창의적 커뮤니티와 연계하고 시민의 삶에 접목할 것 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그동안 논의 되어 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계획,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등등의 관련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고 실행될 때, 비로소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광주만의 미디어아트 창의도시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로, 광주가 추구하는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질(social quality)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창의인재의 유입과 창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아트 창의산업 지원 프로그램(skill set)'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社說

전통시장 현대화가 지역상인 위협해서야

전통시장에 주차장, 진입로, 아케이드 등 편의시설을 보강해 지역상권을 보호하겠다고며 추진 중인 시설현대화사업이 오히려 전통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높은 분양가와 경쟁률로 인해 기존 상인, 노점상 등은 전통시장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남고, 현대식 시장에 외지인들이 입주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군이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포함, 모두 3051억 원을 84개 시장에 투입했다고 한다. 시장 1곳당 평균 3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36억3229만 원을 쏟아부은 것이다.

84개 시장 가운데 16개 시·군 25개 시장은 재건축됐으며, 이 가운데 12곳이 기존 5일장에서 장소를 이전해 '현대식 공설마트'로 탈바꿈됐다. 그러나 현대식 공설마트의 경우 사업의 혜택이 기존 상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무허가 시장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랜 시간 자연적으로 형성된 5일장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곳에 시장을 재건축하면서 갈 곳 없는 상인들이 여전히 5일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일장이 있던 곳은 행정적으로 폐쇄해 전통시장이 불법시장으로 전락한 상태다.

또 막대한 투자에 비해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쳐 시설 중심의 사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쇠락해가는 전통시장을 현대화시켜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는 모두 동의하지만 기존 상인과 노점상이 되레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이는 분명 재고해야 한다.

지역상인들이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인 만큼 이들이 새 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 살리기는 지역상권을 보호하자는 데 있는 것이지 외지인을 위한 '명성 경기'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빛원전 부실 정비 의혹 철저히 밝혀라

한빛원전 5호기의 핵심 설비에 대한 정비가 부실하게 이뤄진 채 가동 중이 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직은 의혹 수준이지만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설마설마하며 대충대충 땀칠 식으로 정비한 후 가동하고 있다면 위험천만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전 측은 결합 부위를 제거하고 텀퍼비드 용접을 실시했으나 또다시 결합이 발견됐는데도 텀퍼비드 용접을 다시 실시하지 않고 다음 단계인 오버레이(Overlay) 용접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측은 정비를 마치고 다음해 3월 한빛 5호기를 재가동했다.

텀퍼비드 용접은 균열을 예방하고 잔류 응력을 낮춰주기 위해 실시된다. 용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균열에 취약한 재료 원전이 가동된 것이다. 따라서 장기 가동 시 가압기 노즐 균열에 합에 제보했다고 한다. 이 정도라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상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가압기는 100도 이상에서 냉각재가 끓지 않도록 압력을 가해주는 기기다. 규정에 따라 가압기 노즐 용접은 4단계로 이뤄진다. 당시 3단계인 텀퍼비드(Temper bead) 용접을 마친 뒤 경계면 2곳에서 용접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합이 발견됐었다.

원전 측은 결합 부위를 제거하고 텀퍼비드 용접을 실시했으나 또다시 결합이 발견됐는데도 텀퍼비드 용접을 다시 실시하지 않고 다음 단계인 오버레이(Overlay) 용접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측은 정비를 마치고 다음해 3월 한빛 5호기를 재가동했다.

텀퍼비드 용접은 균열을 예방하고 잔류 응력을 낮춰주기 위해 실시된다. 용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균열에 취약한 재료 원전이 가동된 것이다. 따라서 장기 가동 시 가압기 노즐 균열에 합에 제보했다고 한다. 이 정도라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상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에 대해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등 사업자 측은 부실 정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가들을 투입해 정비 당시 동영상을 확보하고 조사를 들어갔다. 원자력 발전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대형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철저히 조사의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왜 도박만하면 돈을 잃을까?



박경섭
광주지법 강력부 검사

전담 검사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경마나 고스톱에 이어 인터넷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주류를 이루다가 최근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도박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포커, 바둑이 등 각종 게임을 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접 사람들을 만나 도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인터넷에 접속, 게임을 하다가 결국엔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 도박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수많은 도박자들에게 대해 조사한 결과, 인터넷 도박을 해서 돈을 땀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실제 계좌 추적결과도 도박자들은 항상 돈을 잃은 것으로 나온다. 도박을 하

는 사람들은 항상 '이번에는 따졌지...' 내지는 '본전' 생각에 돈을 잃어도 계속해서 도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똑같은 입장에서 인터넷상에서만 난상 상대방과 도박을 하는데 항상 잃기만 하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분명하다. 상대방과 똑같은 입장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 도박 사건을 수사한 경험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상대방 패를 보면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소위 '돌보기 프로그램'을 전국 PC방에 깔아 놓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대방 패를 보며 도박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일반 도박자들의 돈을 따기 위해 사무실을 차려놓고, 속칭 '선수'들을 고용하여 도박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즉, 집이나 사무실에서 가끔 인터넷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떨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런 순진한 도박자들은 때면 이들의 마수에 걸려들어 돈을 잃고, 다음번을 기억하는 것이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인터넷도박 처벌 내용은 한 번 도박을 하였는지, 또는 여러 번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한다. 한 번 도박을 하였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지속적인 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렇듯, 돈도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데도 끊을 수 없는 도박에 대한 미련들은 이제 버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최근에는 성인은 물론 어린 학생들 역시 부모님의 명의를 동용하여 접속을 하기도 하여 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정 내의 인터넷도 철저히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 고

KIC가 전남의 힘이다

(Korea International Circuit)



김대준
전남개발공사 KIC사업소장

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따가운 햇살과 함께 여름의 싱그러움이 살짝 전해지던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KIC에서는 이색 이벤트가 열렸다.

전남도도와 산하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 KIC사업소는 이날 '다 같이 놀자 경주장 한바퀴'란 주제로 서킷을 개방하고 일반인들을 맞았다. 전문 드라이버들만의 공간에서 벗어나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 자신들의 차량이나, 행사용으로 제공된 슈퍼카를 타고 '꿈의 질주'를 체험했다.

KIC는 이처럼 누구나 안전하게 체험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열린 여가 공간으로의 변모를 통한 비상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KIC의 미래 모습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자동차 모양을 한 대형 정문을 통해 들어서면 햇빛을 가릴 정도의 장대 같은 나무들로 흐드러진 호젓한 가로수길이 펼쳐지고 일상에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여유로움이 곳곳에 가득하다.

정문 바로 옆 부지에는 차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 튜닝산업지원시스템, 튜닝부품 기술개발 등 KIC를 베이스로

한 '모터스포츠 클러스터'가 자리 잡고 있다.

'상설블록'에는 자동차 관련 부품회사와 전문 튜닝샵들로 구성된 '애프터마켓 아울렛'이 들어서 전국 각지의 자동차 애호가들이 모여들어 저마다 특색있는 차량을 만들고 상설서킷에서 시범주행을 한다.

F1블록으로 이동하는 동안 '듀얼서킷(F1코스, 상설코스 등 2개의 코스를 독립적으로 운영)위를 실재없이 뿔뿔이 달려가는 레이싱카들의 포효가 잔잔마저 느껴진다.

분기별로 F1급의 국제대회와 각종 국내외 대회, 자동차회사들의 테스트 및 행사로 경주장은 늘 분주하고 무더운 여름에는 아간 경기도 열려 한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기도 한다.

브릿지를 건너 메인스탠드 뒤편에는 푸른 잔디광장이 펼쳐져 있고 중앙에는 바다분수대가 시원스레 물줄기를 뿜어낸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해가 가는 줄도 모르고 첨벙첨벙 내달린다.

F1블록 초입에 자리 잡은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는 각종 안전운전 교육이 상

시 운영되고 안쪽으로 들어서면 어린이들을 위한 탈것들이 즐비한 '키즈모터파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내부에는 '자동차 역사관'과 자동차 제조과정을 설명하는 '카팩토리', 모터스포츠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모터스포츠 체험관'과 '실내 카트 트랙'이 마련돼 눈비가 오는 날에도 짜릿한 카트를 즐길 수 있다.

시원스레 펼쳐진 영암호를 바라보며 '힐링의 공간'으로 내놓아도 손색없는 F1블록 내 14동의 팀빌딩도 대화가 없는 날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된다.

부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카트장, 오토캠핑장, 야구장, 오프로드 시설 등도 가축단위 복합레저시설로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카트장 주변을 중심으로 푸른 잔디가 깔린 체육공원이 마련돼 미니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및 농구장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선 조정 자동차(RC Car) 대회와 함께 마라톤,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팅 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행사도 열려 지역민과 같이 호흡하게 된다.

머지않아 KIC는 전남의 보물이자 대한민국 관광의 필수 코스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KIC가 전남의 힘인 이유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The Kwangju Ilbo)
"여자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다고 로 마인은 나를 바보로 여기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제노비아의 성격과 위업을 모르는 자의 말이다."
서기 270년경, 팔미라(Palmyra)의 여왕 제노비아(Zenobia)와의 전쟁에서 고전하다 결국 항에 맞아 부상한 로마 황제 아우렐리아누스가 원로원에서 한 이야기다.
"탁월한 여성, 제왕 중의 제왕의 어머니"라고 불리던 제노비아는 정복 전쟁을 통해 로마의 속국이었던 팔미라를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시킨 여장부였다.
클레오파트라에 심취해 자신을 '클레오파트라의 자손'이라고 믿었던 그녀는 여러 국가의 언어에 능통했으며 플라톤과 호메로스에 정통했을 만큼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돋보이게 한 것은 무엇보다 그녀의 미모였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녀의 피부는 구릿빛으로, 차이는 진주와 같이 희고, 커다란 검은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났다. 꼭 꺼안고 싶을 만 큼 상냥했으며 목소리는 맑고, 힘이 셨다.
오리엔트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성인 그녀는 또, 유능한 전사로서 승마
적에 대해 "뜨거운 모래시막 한가운데, 땅속에서 솟아오른 것 같은 환상도시"라고
말했는데, 이 표현 역시 제노비아가 초래한 '팔미라의 멸망'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팔미라는 제노비아를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힘들 정도다.
최근 중동의 고대 유적·유물을 잇따라 파괴되고 있는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이번엔 팔미라를 파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주인을 잃은 뒤 폐허가 되어 세계사에서 잊혀졌던 팔미라가 공교롭게도 또다시 '파괴된 도시'로서 세상에 재등장하는 모습이 '역사의 아이러니'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

Table with 2 columns: Left side contains contact info for Kwangju Ilbo (address, phone, fax, website). Right side contains contact info for The Kwangju Ilbo (address, phone, fax, website).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